

전남도, 여수산단 거버넌스 권고안 '잠정 확정'

환경오염 위반 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실시 등 9개항 주민대표·사회단체 의견수렴 거쳐 다음달 최종 결론

여수국가산업단지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열린 제21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민관합동조사 실시 등을 담은 권고안 9개항을 잠정 확정했다.

여수시청에서 가진 이번 위원회는 주민대표, 사회단체, 행정기관, 전문가 등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을 보고받은 후 막바지 조율을 통해 거버넌스 위반 사업장 민관 합동조사 등 권고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권고안 서명식 행사안도 논의했다.

이로써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사전 제발 방지 및 최적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운영된 여수국가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9개항의 권고안을 잠정적으로 확정지었다.

잠정 확정된 권고안 주요 골자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여수산단 위법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증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등이다.

거버넌스 위원회는 잠정 확정된 권고안에 대해 5개 마을 주민대표와 사회단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11월 중순까지 권고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서명식 행사는 위원들의 서면 의견수렴을 통해 시기와 장소, 참석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추후 권고안이 확정되면 거버넌스 위원회는 권고안의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 시행하고,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등 2건의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할 거버넌스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권고안에 따라 거버넌스 실무위원회 구성을 비롯 권고안 이행사항 확인, 연구과제 총괄, 환경감시활동 강화 등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환경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비대면 '여권 재발급' 서비스 전남도·순천·여수·해남 우선

전남도가 외교부 정부혁신 과제로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29일부터 비대면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에 들어간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전남도를 비롯 순천시, 여수시, 해남군에서 우선 시행되며, 올 12월 중 국내 대형기관 및 재외공관으로 전면 확대될 계획이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는 일반 전자여권 발급기록이 있는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내에선 '정부24', 국외의 경우 '영사민원24'에 접속해, 본인이 직접 여권 규격에 맞는 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등산국립공무원사무소 신청사 준공 무등산국립공무원사무소는 중심사 지구 초입인 광주 동구 운림동에 신청사를 준공했다. 29일 밝혔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2013년 문을 연 사무소는 신청사 바로 옆 민간 소유 부지와 건물을 빌려 임시청사 생활을 이어왔다. 사진은 신청사 전경. <무등산국립공무원사무소 제공>

광주 4개 문화콘텐츠기업에 6개 창업투자사 71억 투자

광주시는 29일 광주시청에서 올해 문화산업 투자유치 성과보고회를 열고 6개 민간창업투자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회사는 지역 4개 문화콘텐츠 기업에 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지, 이에스인베스터 등 2개사는 웹툰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지역 게임 기업 플래시마인드에 각각 32억원, 8억원을 투자한다.

대교인베스트먼트, 오로라월드 등 2개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제작으로 유명한 스튜디오버튼에 각각 12억원, 3억을 지원한다. 마그나인베스트먼트는 어뮤즈파크에 13억원, 이크릭스벤처파트너스는 캠프 파이어에니웍스에 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동부권 코로나 진단검사 대응체계 가동

보건환경연구원 인력 충원 생물안전연구시스템 구축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남 동부권역의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해 진단검사 전문인력 4명을 긴급 충원하고 순천 동부지원에 생물안전연구시스템을 구축해 29일부터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이번 대책으로 동부권에서 감염병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검사지연 예방

과 검사결과의 신속한 통보가 가능해져 동부권 확진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매일 접촉자나 의심환자들에 대한 검체를 의뢰해야 할 동부권 7개 시·군 지자체들도 한시름 덜게 됐다.

앞으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등 7개 시·군은 순천시 해룡면에 소재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24시간 비상진단검사 체계로 전환해 각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동부권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전남 동부권에 진단검사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검체를 서부권인 보건환경연구원 본원(무안 소재)으로 장거리 이송해 왔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쳐 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 리치엔코 고객센터 들어선다

광주시, 리치엔코와 100석 규모 비대면 보험상담센터 협약

광주시는 29일 법인보험대리점인 ㈜리치엔코와 고객센터(비대면 보험상담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리치엔코는 내년 2월까지 광주에 100석 규모의 비대면 보험상담센터를 신설하고 광주시민을 우선 채용한다. 광주시는 보험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2006년 설립된 ㈜리치엔코는 서울 본사 480여명 등 전국에 3500여명의 위촉설계사가 종사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연매출만 2597억원에 이른다.

리치엔코 비대면 상담 사업부에는 900여명이 근무하며, 연간 20여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리치엔코가 신설 투자지역으로 광주

를 선정한 것은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우수한 인적자원, 저렴한 임대료, 행·재정적 지원 등 입지여건의 차별성 때문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에는 현재 69개 고객센터에서 7300여명의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리치엔코 고객센터(비대면 보험상담센터)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유치한 기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광주시가 컨택산업에 매력적인 도시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센터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등산·AI·감염병·지진 피해 주의 당부

11월 주의해야 할 재난안전사고

광주시는 "11월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등산, 가축질병(AI), 감염병, 지진 발생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광주시 등산사고는 441건으로 사고 유형은 실족·추락, 개인질환, 조난, 안전수칙불이행 등 순이다. 가을 단풍철은 등산객이 평소보다 증가함에 따라 등산사고와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로, 산행 시에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지정된 등산로 이용, 보행주의, 충분한 휴식 등을 취해야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독감)는 매년 이맘때 주로 발생하는데, 국내에선 지난 21일 2년 8개월만에 충남 천안 봉강천에서 H5

N8형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확인됐다.

광주시는 내년 2월까지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월 2회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예찰·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최근 결핵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전국의 중심 유병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과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수두와 인플루엔자(독감)의 계절적 유행 시기에 접어들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에서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광주시의 조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다음달 화물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시·구·경찰청·화물협회 등 합동

광주시는 "11월 한 달간 5개 자치구와 경찰청, 화물협회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밤샘주차는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단속은 관내 주택·이면도로·공단 등 교통사고 취약지역과 시·구에 제기된 민원 다발지역, 사고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정 차고지 외 아파트, 심야시간대 교통량이 많고 사람 통행이 잦은 주거 밀집

지역, 도로 갓길,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좁은 2차선 도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적발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박갑수 광주시 교통정책과장은 "사고위험과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선진교통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차량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